

신간소개 | Books



이미지 출처: 인터넷서점 알라딘

라틴아메리카 좌파 정부

쿠르트 웨이랜드, 라울 마드리드, 웬디 헌터 (지은이) | 하
상섭 (옮긴이)

출판사: 이담복스

출간일: 2013-11-29

ISBN(13): 9788926845813

402쪽 | 223*152mm

현 라틴아메리카 좌파 정부의 정치경
제 및 사회적 발전성과 그리고 다양한 이
들 정부들의 정책적 실험을 살펴보기 위해
서 기획된 책이다. 특히 정치적 이데올로

기 관점에서 남미 ‘좌파’라는 공통적인 프리즘을 통해 이들 좌파 정부들의
‘성공과 실패의 정치경제학’을 다루고 있다.

제1장은 남미 좌파정부들의 정체성 범주 정하기 작업을 시도했다. 제
2장의 차베스의 정치경제 실험은 본서의 핵심 분석이다. 제3장의 볼리비
아 모랄레스 정권 분석은 원주민 정치의 등장과 이의 정치참여 확대 및
사회정책의 진보적 성과와 민주주의 발전의 한계를 담고 있다. 제4장 칠
레의 연합정부 분석은 좀 더 치밀하며 역사적 뿌리를 찾아 지난 20년간
칠레 좌파 정부들의 성과를 추적해 내고 있다. 제5장의 브라질 룰라는 실
용좌파의 정책적 정체성과 온건좌파로서 정책이행을 잘 따라가고 있다.
제6장은 이를 좀 더 '안정과 발전'의 딜레마 게임 차원에서 룰라 정부가
어떤 선택을 해 왔으며 미래 노동자당 정부의 향방은 어떻게 될 것인가
전망해 내고 있다. 제7장은 결론과 종합으로 저자들이 범주화한 모든 라
틴아메리카 좌파정부들을 비교분석을 하고 있다.



이미지 출처: 인터넷서점 알라딘

멀어지는 빛

토마스 곤살레스 (지은이) | 김현철 (옮긴이)

출판사: 천권의책

출판일: 2014-02-03

ISBN(13): 978899589423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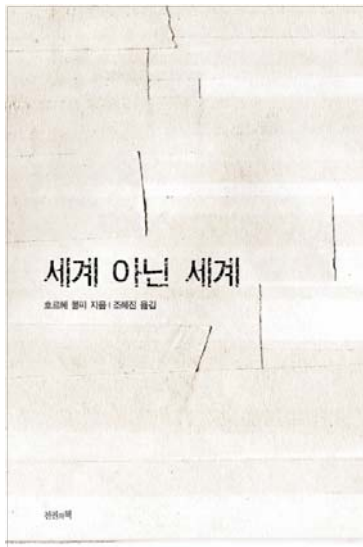
236쪽 | 200*133mm

작가이자 철학자인 토마스 곤살레스 소설. 마약에 취한 운전사가 몰던 트럭이 택시로 돌진하던 그날 이후, 가족의 삶은 제 호흡을 멈추었다. 미래는 이미 그 순간, 변하지 않은 고형의 물질이 되어 버렸다.

소설은, 삶은 멈추지 않았지만 시계는 더 이상 움직이지 않는 그 정적의 공간 속에서 시작한다. 불시에 찾아 온 고통으로 인해 뒤틀린 시공간은 서른 세 개의 짧은 장으로 나뉜다. 마치 파편처럼 조각난 하코보의 삶과 가족들의 시간에 대한 은유처럼, 그것은 서로 이어지기도 하고 분절되기도 한다.

다시 걸을 수 있다는 희망이 사라지고 난 자리는 언어의 한계를 비웃는 고통이 차지하고, 그 끔찍한 고통을 견디며 산다는 게 어떤 의미를 가질 수 있는지 누구도 말할 수 없게 된 순간, 이들이 선택한 건 안락사였다.

‘잠을 자는 동안’ 이든, ‘깨어 있을 때’ 든 죽음을 기다리던 하코보가 차라리 먼저 다가서겠다고 떠난 후 슬픔으로 받아들여야 할지, 안도로 받아들여야 할지 모호한 소식을 기다리는 사이 다비드는 과거와 현재를 오가며 조용히 묻는다. 사랑과 산다는 것의 정의는 무엇이냐고. 죽음은, 혹은 상실은 정말 끝이냐고.



이미지 출처: 인터넷서점 알라딘

세계 아닌 세계

호르헤 볼피 (지은이) | 조혜진 (옮긴이)

출판사: 천권의책

출판일: 2014-02-03

ISBN(13): 9788995894224

708쪽 | 200*133mm

한때 중남미 문학은 가르시아 마르케스로 대표되는 마술적 리얼리즘 문학과 동의어였다. 그 어떤 대륙에서도 볼 수 없었던 낯선 형식과 어법은 중남미 문학을 세계적인 문학으로 추켜세웠다. 그러나 이 마술적 리얼리즘이라는 산은 거대한 틀과 속박이 되어 중남미 문학을 짓누르는 결과를 초래하기도 했다. '마술적'이라는 '마법'에서 벗어나는 건 중남미 문학이 아니었고, 읽히거나 평가받을 가치가 없다는 획일화된 틀은 신진 작가들을 억누르는 폭력이 되었다. 의도된 폭력은 아니었을지라도 또 다른 1492년의 귀환처럼 서구의 시선으로 자신들의 문학을 바라보는 문학 식민화의 징후로 보였다. 그 서구식 규정에 대한 반기는 선배에 대한, 선배들의 문학적 성취에 대한 반기가 아니라 서구식 시선에 대한 반기였고, 그 한 가운데에 '크랙' 그룹이 있었다.

〈세계 아닌 세계〉의 저자 호르헤 볼피는 '크랙' 그룹의 산파 역할과 이론적 틀을 제공해 준 핵심 인물 가운데 한 명이자 크랙 그룹이 추구했던 문학에 가장 충실한 모습을 보이는 대표 작가이다. 〈세계 아닌 세계〉로 마무리한 20세기 3부작만 보더라도 중남미 내면의 특수성에 천착하기 보다는 세계적 보편성에 주목하고 있음을 쉽게 알 수 있다.



이미지 출처: 인터넷서점 알라딘

일백 개의 산을 넘어

레이나 그란데 (지은이) | 박은영 (옮긴이)

출판사: 글누림

출간일: 2014-01-10

ISBN(13): 9788963272368

368쪽 | 210*148mm

멕시코 출신의 작가 레이나 그란데의 첫 장편소설. 멕시코 출신의 후아나와 미국 출신의 라티나인 아텔리나라고 하는 두 소녀의 이야기가 교차로 서사되어 가다가 한 지점에서 만나고 그 만남이 예상치 못한 결

말로 이어지는 작품이다.

그녀를 어머니와 갈라놓아 버린 비극을 겪은 후, 후아나 가르시아는 여러 해 전에 행방불명된 아버지를 찾아 멕시코에 있는 그녀의 작은 마을을 떠난다. 돈이 바닥나고 국경을 넘도록 도와줄 사람이 필요하던 때에 후아나는 마침 삼 년 전 부모가 반대하는 사람을 따라 캘리포니아에서 멕시코로 사랑의 도피를 해온 아텔리나 바스케스라는 소녀를 만나게 된다.

두 여인이 가장 뜻하지 않은 장소 - 티후아나의 감옥 - 에서 힘을 합한 이후로 일어난 일들은 겉으로 보이는 것과 다르다. 미뤄진 꿈들과 성취된 꿈들을 그려가는 생생한 소설 속에서 작가 레이나 그란데는 미국으로의 이주라는 현상의 이면에 남겨진 멕시코인들의 삶 속으로 독자를 데려간다.



이미지 출처: 인터넷서점 알라딘

내일 전쟁터에서 나를 생각하라

하비에르 마리아스 (지은이) | 송병선 (옮긴이)

출판사: 문학과지성사

출판일: 2014-01-17

ISBN(13): 9788932024547

511쪽 | 223*152mm

스페인 현대 문학을 대표하는 작가이자 세계 유명 문인들의 찬사를 한 몸에 받고 있는 하비에르 마리아스는 특유의 성찰적이고 시적인 문체로 현대인의 존재론적 불안을 예리하게 그려내는 작가다. 이른바 ‘형이상학적 스릴러’라는 마리아스 소설 특유의 성격을 유감없이 보여주는 『내일 전쟁터에서 나를 생각하라』는 확실히 보이는 삶 너머에 있는 불확실성에 대한, 삶을 주관한다고 믿지만 사실은 불확정적인 것들로 가득 찬 인간 존재에 대한 관조를 통해 얻은 깨달음을 전한다. 이 작품이 여러 유명한 문학상을 수상했지만, 그중에서도 ‘로물로 가예고스 상’ 수상은 매우 중요하다. 로물로 가예고스 상은 베네수엘라 정부가 수여하는 상으로, 남미의 노벨상이라고 불리며 문학성과 실험성이 뛰어난 작품에게 주어지는데, 마리오 바르가스 요사, 카를로스 푸엔테스, 앙헬레스 마스트레타 등이 역대 수상자이다.

사실 사색과 성찰이 포함되어 느리게 진행되는 소설을 읽는다는 것은 고역이 될 수도 있다. 그러나 『내일 전쟁터에서 나를 생각하라』는 전혀 예측할 수 없는 상황으로 이끄는 기발함으로 내면적 성찰에 중심을 두는 소설의 단조로움을 파괴하고, 이로 인해 독자가 긴장감을 늦출 수 없게 만든다. 우리의 삶과 존재에 대한 치열한 반성이라는 성찰적인 내용을 스릴러라는 형식으로 풀어낸 이 비범한 작품은 문학사의 한 장을 장식할 현대의 명작으로 남을 것이다.



이미지 출처: 인터넷서점 알라딘

세상을 뒤집는 의사들

스티브 브루워 (지은이) | 추선영 (옮긴이)

출판사: 검등소

출판일: 2013-05-22

ISBN(13): 978898040365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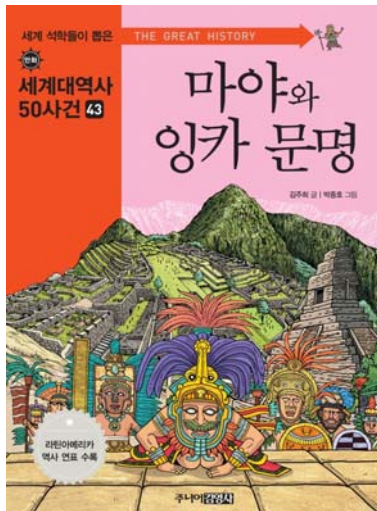
367쪽 | 210*148mm

쿠바에서 이어져 베네수엘라로, 라틴 아메리카와 세계로 퍼지는 공공 보건 의료 현장으로 새로운 의사들을 만난다. 전 세계 재난과 의료 부족 현장에 나타나 보편적 의료를 실천하는 쿠바 의사들의 이야기

와 함께 그들의 활동을 통해 자국의 의료 불평등을 고치고자 한 베네수엘라의 차베스 정권이 실시한 공공 의료 혁명 바리오 아텐트로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다.

의료 불평등은 세계 곳곳에서 문제를 일으키는 중요한 문제다. 이 책은 라틴아메리카에 나타난 새로운 의사들의 활동을 통해서 넉넉하게 의료 인력을 충원하고, 모두에게 모자람 없이 의료가 제공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하는지 중요한 실마리를 제공하고 있다.

저자는 베네수엘라에서 차베스 정권이 집권하면서 나타난 새로운 사회운동인 ‘볼리바르 혁명’을 취재하기 위해서 베네수엘라에 들어가게 되었지만, 이곳에서 생활하면서 이전에는 볼 수 없었던 새로운 의료 모델인 바리오 아텐트로를 접하게 된다. 바리오 아텐트로를 통해 개선된 주민들의 건강과 지역에서 의학생을 가르치고 의사로 만드는 모습을 보면서 공공적 의료에 대한 접근을 새롭게 하게 되었고, 이를 책으로 정리한 것이 바로 『세상을 뒤집는 의사들』이다.



마야와 잉카 문명

김주희 (글) | 박종호 (그림)

출판사: 주니어김영사

출판일: 2013-08-15

ISBN(13): 9788934955726

216쪽 | 257*188mm (B5)

마야와 잉카 문명은 〈세계 석학들이 뽑은 만화 세계대역사 50사건〉의 43권이다. 이 시리즈는 세계사의 중요한 전환점이 된 핵심사건을 뽑아 그 사건의 의미와 인류 문명·문화가 발전되어 온 과정을 생생하게 보여주면서 세계사의 맥락을 짚어 주고 있다. 그 중 『마야와 잉카 문명』은 라틴아메리카의 3대 문명이라고 할 수 있는 마야, 잉카, 아스테카의 화려한 번성기를 담고 있다. 지금도 남아 있는 마야, 잉카, 아스테카의 유적지와 유물을 살펴보면, 심원한 종교, 수준 높은 천문학, 농업, 건축술, 예술품에 이르는 설명은 라틴아메리카 문명의 이해를 돕기에 충분하다. 다만, Olmeca는 ‘올메카’로 바로 표기했으면서도 Azteca를 ‘아스테카’라고 하지 않고 영어식으로 ‘아즈텍’이라고 표기한 것이 흠이라면 흠이다.

아울러 이 시리즈 41권의 『카스트로와 쿠바 혁명』(글 오성찬, 그림 김광옥)은 유럽 열강들의 침략에 맞서 싸우다 죽어 간 쿠바 원주민들의 이야기와 쿠바로 팔려온 흑인 노예들의 이야기, 독재에 맞서 싸운 카스트로와 체 게바라의 이야기, 냉전 체제 아래에서 벌어진 쿠바와 미국의 갈등 그리고 카스트로의 정치를 다루고 있으며, 47권의 『라틴아메리카 독립과 민주화』(글 방대광, 그림 최익규)은 19세기 스페인과 포르투갈의 식민 지배를 벗어나 독립을 쟁취한 후에 각각의 국가를 세우고 나라의 기반을 다져가는 일련의 과정들이 섬세한 그림과 함께 이해하기 쉽게 서술하고 있다.